

 <b>報道資料</b> [2011. 3. 24.]	<b>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b>			
	<b>보도시점</b> <b>배포 즉시</b>			
	<b>담당부서</b>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b>전화번호</b>	054-777-8805
<b>담당자 (e-mail)</b>	박종익(hosan7097@korea.kr)	<b>F A X</b>	054-777-889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국가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에 동시게재				

## 경주 사천왕사 발굴현장에서 추정 사적비편(事蹟碑片) 발견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경주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 사적 제8호)의 가람(伽藍)구조와 사역(寺域)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해 오던 중 사지의 남쪽에 위치한 한 쌍의 귀부(龜趺: 거북모양의 비석받침) 중 동편 귀부 앞쪽 기단 석열에서 사천왕사 사적비(事蹟碑)로 추정되는 석비(石碑) 편 1점과 이수(螭首: 비석 윗부분의 용머리 장식) 편 1점을 발견했다.

이 석비편(石碑片)은 화강암을 석재로 사용한 가로 55cm, 세로 11cm, 두께 14cm 정도의 소형 비편으로, 매끈하게 다듬은 비면에는 3.5cm 정도의 간격으로 가로 세로 음각선이 그어지고 그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글자는 2~2.5cm 크기이며, 해서체이고 통일신라시대 석비에서 보이는 각자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편이 가로로 길게 조각나 있어 비문은 15행이나 남아 있어도 1행당 1~3자씩 밖에 존재하지 않아 문맥이 거의 연결되지 않고 내용 역시 알기 어려우나 글자는 비교적 뚜렷하다.

현재 「神將, 大王, 十六日, 巨嶽, 特, 道, 而, 疆, 月, 徹, 英」 등의 30자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 비편의 발견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이수(螭首) 부분의 용 비늘무늬가 새겨진 석재(잔존크기 15.5~18cm) 1점도 같이 발견되었는데, 역시 조각이 정교하고 통일신라시대의 조형성이 나타나 있어 이 두 석재는 한 개체분의 비신(碑身)과 이수(螭首)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석비편은 서편 귀부 부근에서 출토된 문무왕릉비편과 비교할 때 재질이나 방형 계선의 크기 등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사천왕사 사적비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비편 등의 존재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1. 발견지점



사진2. 발견 비의 세부모습

